



## 미래지향적 수산업 청사진이 필요하다

- 제56회 일본 전국어항어장대회를 참관하고 -

지난 14일 일본 현 시즈오카시 시즈오카 그린십에서는 제56회 일본 전국어항어장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를 꼼꼼이 지켜보고 있노라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수산업과 비교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찌 보면 세계 최상위급 수산대국이 지나치다 할만큼 업살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 수산업과 관련, 참으로 시의적절 하면서도 본받을 바가 많은 것들이었다. 일본이 세계 수산업계의 정상상을 유지하는 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대략 네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풍요로운 바다의 숲 만들기라 만들어 기르는 어업, 자원 회복을 지원 하는 기반 만들기의 추진. 둘째,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의 생산 공급 기반의 정비. 셋째, 도시와 어촌의 공생·대류의 촉진과 아름다운 어촌 만들기의 추진. 넷째, 어항 어촌에 있어서의 지진에 의한 해일 방재 대책의 조속한 강화 등이다.

사실 네번째 사항 가운데 '지진'을 '태풍'으로 바꾼다면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비추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내용에 근거, '어항 어장정비장기계획 및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해안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2005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달라는 건의를 하기에 이른다. 바로 이점이 우리와 크게 다른 부분이다.

더욱이 일본은 이미 2001년에 '수산기본법'과 '어항어장정비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재작년에 '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에 근거하여 해안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치밀한 사업계획과 추진력이 새삼 부러울 따름이다.

이제 눈길을 잠시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 매스컴을 통해 이미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동해안의 주력 어종인

명태류가 거의 사라지고 때아닌 꽃게가 대량으로 잡히는 등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은 환경변화의 진통을 톡톡히 겪고 있다.

게다가 수산업이 국민의 중요한 식량산업 공급처라는 명분과는 크게 다르게 주변수역의 자원 상황 악화, 수산업 종사자의 감소 및 고령화, 어가의 침체 등 사양화 경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 어업인들의 "21세기의 훌륭한 나라 만들기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수산업과 어촌의 존속이 없으면 안된다고 확신한다"는 이런 자부심마저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실종된 지 이미 오래 됐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업인이나 어항인 등 수산업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다가는 수산업의 기반이 무너짐은 물론 존재 의미조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수산인들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홍보를 계속하면서, 정부·국회 등에 지원대책과 협조 노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띠 두르고, 피켓 들고 시위에 나서자는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나름대로의 수산업 청사진만큼은

만들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일희일비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체계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자는 뜻이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일본과 같은 수산인 모두의 대단합대회인 전국어항어장대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21세기에 있어 수산업·어촌의 지속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우리만의 색깔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색깔은 누가 그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은 우리 모든 수산인들에게 바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어촌어항소식)

